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

정종욱*

I. 서론

작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은 그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떠나 분명 반세기 한반도 분단사에 중요한 이정표적 사건이었다. 남북의 최고 책임자가 만났다는 사건 자체가 처음 있는 역사적 일 일뿐 아니라 처음 만남치고는 제법 많은 합의 사항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의미는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이 화해 협력과 통일을 향해 빠른 행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다. 실제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이 몇 차례 있었고 이산가족 재회도 두 차례 실현되었고 그밖에도 국방장관 회담, 경제 회담, 언론 사장단의 방북 등 많은 일들이 뒤 따라 일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가까워 오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초기의 낙관적 분위기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장관급 회담이 약속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열리지 못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도 지연되고 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급속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한 미디로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는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 1부위원장의 미국방문이 있었고 미국 쪽에서도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합의되는 등 급속한 개선 움직임을 보여주던 북 미 관계가 금년 초 부시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다시 경직되면서 남북관계 역시 정상회담 이전의 상태로 후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북한도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국과 대화가 재개되어야 남북관계의 진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도 북미대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나 부시행정부의 아시아정책이 자신을 겨냥한 압박전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그만큼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미 중 관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셈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최근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 전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 중 수교와 사회주의 권의 해체 이후 오래 동안 침체되고 소원했던 시기를 청산하고 다시 북한과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의 과정에서도 보다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적극적 의지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적극적

* 아주대 교수

행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가려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II. 북 중 관계의 역사

한반도는 49년 정권수립 이후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매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념적 유대는 한국전쟁 기간 중 지원군의 이름으로 중국이 참전함으로써 혈맹적 측면이 추가되어 다른 어떠한 국가와도 다른 강력한 동맹 관계를 형성해 왔다. 물론 49년 이후 지금까지 양국관계가 혈맹적 동맹으로 일관된 모습을 유지해온 것은 아니다. 사실 북 중 관계처럼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국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친소의 굴곡을 보여 준 경우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중 소 분쟁, 미 중 대당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추구, 사회주의 권의 몰락, 냉전체제의 해체, 그리고 한 중 수교 등 급격한 대 내외적 변화에 따라 북 중 관계 역시 기복 심한 부상과 침체의 시기를 경험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그 어떤 나라와의 관계보다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침체의 시기가 일시적 현상이었다면 부상의 시기는 일반적 현상이었다고 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니었을 만큼 양국관계는 이념적 동질성과 전우적 동지의 관계를 뛰어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북 중 관계는 6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소원한 상태를 경험했다. 전자의 경우 북한이 중 소 분쟁 속에서 소련에 편향되는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 시기는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로서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흐루시초프에 비유되는 수정주의자로 매도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건국 이래 최악의 상태를 기록했다.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권이 몰락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과 수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북한을 “배신”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두 나라 관계가 침체되었던 배경에는 보다 복잡한 원인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60년대 후반에는 북한이 대남 군사노선을 선택하면서 무력통일의 길을 추구하고 중국의 소극적 월남 지원에 북한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는 요인들도 무시할 수 없다. 90년대 초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무상원조를 없애고 양국간 교역에서 경화결제를 요구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곤경에 처해있던 북한을 더욱 더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배경 때문에 발생했던 간에 소원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60년대의 경우 5년 정도 계속되었고 90년대에는 회복하는데 7년 정도가 걸렸다. 후자가 전자보다 다소 오랜 시일이 걸린 것은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승계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이었다.

92년 8월 한 중 수교와 함께 북 중 관계가 소원기에 접어들고 김일성의 사망으로 그 기간이 다소 오래 끌긴 했어도 60년대 후반에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다른 측면들이 감지된다. 첫째, 전자의 경우 64년 11월 월남 방문 길에 북경을 경유하는 형식을 빌렸던 김일성의 방문을 끝으로 69년 9월 최용건이 방중, 김일성의 관계개선 의사가 전달될 때까지 5년 동안 양국간에는 일체의 교류협력이 거의 완벽하게 단절되었던 데 비해 90년대에는 한 중 수교 이후에도 99년 6월까지 최고위급의 내왕은 없었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었다. 호금도 정치국 상무위원이 93년 7월 북한을 방문했고 다음 해 9월에는 이종욱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 강택민 주석과 회담했다. 94년부터 대북원조가 재개되었으며 95년부터는 우호가격이 부활되고 구상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무상원조도 재개되었다. 95

년 10월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개최된 북한정권창립 50주년 기념연회에는 강택민 주석이 직접 참석하여 “국제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 중 관계는 변함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이라는 내용의 치사를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음 해 5월에는 홍성남 부총리가 정창열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과 함께 북경을 방문, 상품차관 협정과 경제군사원조 협정을 체결했고 그 다음 해 96년 7월에는 라간 중국 국무원 비서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 식량 10만톤 등 무상원조를 제공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소원기라 하지만 90년대에는 최고정상급만 제외하면 북한과 중국 양국간에는 인적교류와 경제적 지원이 꾸준히 계속되었다. 물론 북한이 한 중 수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졌고 한 중 수교 이후 한동안 양국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위급의 방문이 오래 동안 중단되었던 것은 김일성 사망 이후 만 3만년 이상 조문기간이 있었고 그 후에도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북한은 중국에게 중요한 이웃이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다.

Ⅲ. 북 중 관계의 특징

중국과 북한 관계는 이념적 유대와 혈맹적 측면을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필자는 북 중간에 이념적 유대나 혈맹적 측면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설령 존재한다 해도 과거와 같은 강한 흡인력은 상실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념적 유대는 중국이 80년대 초부터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희석되기 시작했고 90년대 초 사회주의 권의 해체와 한 중 수교를 계기로 사실상 알맹이 없는 구호로 전락해버렸다. 혈맹적 관계 역시 90년대에 들어와 중국과 북한 지도층 내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원로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현직에서 물러남으로서 그 현실적 중요성이 사라졌다. 이런 측면에서 김일성의 사망은 북 중 관계에서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사망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존재해온 혁명 1세대간의 동지적 관계가 종언을 고했음을 뜻한다. 그는 생전에 39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다. 10대의 어린 시절부터 중국의 동북 지방에서 자랐으며 그가 30년대에 항일무력투쟁을 했던 조직도 항일연군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군사조직이었다. 중국말을 유창하게 했을 뿐 아니라 모택동을 비롯하여 중국 지도자들 중에 많은 지인을 갖고 있었으며 중국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특별한 친밀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사망은 북 중 관계에서 한 시대가 끝났다는 상징성을 지니는 것이라 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김일성이 없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이념적 혈맹이 아니라 사활적 전략 동반자의 관계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흔히 한 미 관계를 놓고 사활적 동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관계야말로 사활적 이해가 걸린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라 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에게 갖는 전략적 가치에 비하면 북한이 중국에 갖는 그것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순치(循齒)의 관계로 묘사한다. 이빨과 입술의 관계라는 뜻으로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린 것(循亡齒寒)처럼 북한은 중국에게 안보 전략상 불가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빨과 입술의 관계는 이념적 동질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적 이해 때문에 생긴다. 중국이 한국전에 참가해서 36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했던 것도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보다 안보 전략상 중요한 요충이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패망하면 중국의 안보가 결정적 위협을 받게될 것이라고 판단

했기 때문에 건국 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국이 참전을 단행했던 것이다. 혈맹적 유대 때문에 순치의 관계가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전우애를 발휘하고 혈맹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북 중 관계는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김정일의 통치하에서의 북한이나 강택민 이후의 중국에서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양자간의 현안문제를 보는 시각과 해법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90년대 초 북한의 핵 개발이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둘러싸고 한반도에 군사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중국은 북한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설득했다. 북한의 체면을 살리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패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결의안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의 입장과는 다르게 기권을 했던 것이 좋은 예로 꼽을 수 있다.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도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미국에게 MD계획의 구실을 제공한다는 견지에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는 게 표면상 이유이지만 실지로는 MD계획이 바로 중국 자신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의 강도는 매우 강하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MD계획을 반대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미사일계획의 포기를 은근히 종용하고 있다.

중국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과 미국과의 직접 협상이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북 미간의 관계개선을 지지하면서도 그것이 북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감소로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쓰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고려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 사후 한동안 중국은 북한의 체제붕괴를 우려했었다. 90년 대 중반 중국이 소원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상당 규모의 경제원조를 제공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북한의 정치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도 최악의 상태를 넘긴 다음에는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협상만을 고집하면서 뉴욕과 제네바 등지에서 북 미 협상에 매달릴 때에는 북한의 대미 경사가 자신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의미하지 않을 까하는 심각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중국이 97년부터 4자 회담에 적극적 태도로 돌아선 것도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96년 4월 4자 회담 구상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만 해도 중국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양자 협상이 계속되면서 중국은 자신의 역할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4자 회담 제안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지지하고 나섰을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이 제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기 시작했다. 97년 3월 4자 회담 설명회가 열렸을 때 중국 정부의 수석대표로 당가선이 직접 참석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당시 당가선은 중국의 외교부장으로 내정되어 이미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다. 북한의 수석대표가 김계관 부부장이고 미국의 수석대표 역시 차관보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가선의 참석은 중국 정부가 이 회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자신이 배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다시 확보하고 북한과의 유대에 다시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한 다음인 99년 이후 중국이 4자 회담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돌아섰다는 사실도 이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IV. 정상회담 이후의 북 중 관계

이러한 그 간의 사정을 고려하면 중국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는 사실은 오려 당연한 일이었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축이 다시 남북한 쪽으로 무게 이동을 했으며 미국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일이 북경을 비밀 방문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의 북경 방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논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그 방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중국과 북한간에는 오래 전부터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전통이 있어왔다. 그 좋은 예가 70년 대 초 미 중 대탕트와 한 중 수교이다. 71년 7월과 10월 키신저 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다음 해 2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상해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 중국 정부는 북한과 긴밀히 협의한 바 있다. 키신저와 닉슨의 방중이 있는 직후 주은래 수상이 직접 평양을 방문, 미국과의 협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71년 7월 키신저의 첫 비밀 방문 때에는 주은래의 평양 방문 직후 김일 부수상이 북경을 방문, 미국에 대한 북한의 8개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이것을 미국에게 전해 주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한 중 수교의 경우에도 비록 북한이 찬성하지는 않았으나 중국 정부로서는 그 내용을 사전에 북한에 알려주고 수교의 불가피성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구하는 성의를 보였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일의 북경 방문도 이러한 사전 협의의 전통을 다시 살려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 중 관계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정상회담 이후 대단히 활발히 진행되었다. 정상회담 직후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8월에는 葉選平 정협 부주석이 방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과 회담했고 9월에는 戴秉國 대외연락부장이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으며 10월에는 遲田田 국방부장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현재 중국 지도층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 명되지 않는 한국전 참전용사이기도 한 그는 방북 기간 중 평양 5.16경기장에서 18만 명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전 참전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다시 긴밀해진 북 중 관계는 금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있었던 김정일의 두 번째 중국 방문으로 또 한번 탄력을 받게 되었다. 대규모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먼저 상해에 들린 김정일은 3박 4일 동안 주용기 총리의 안내를 받으면서 전자회사와 증권시장을 포함하여 중국의 성공적 개혁개방정책의 전시관이라 할 수 있는 모범 기업체들을 자세히 돌아보았으며 귀국 길에는 북경에 들려 강택민과 회담했다. 수행원 중에 김영춘 총참모장과 강석주 외교부 제 1부부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 김정일과 강택민의 회담에서 대미관계를 포함한 양국간의 외교 군사 현안들이 논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김정일의 방문 다음에는 3월 曾慶紅 당 조직부장이 방중이 뒤를 이었다. 증경홍의 공식 직책이 당의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요직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강택민의 최 측근 실세라는 점 때문에 그의 방북은 특별한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그는 방북 기간 중 김정일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강택민 주석이 금년 내에 북한을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8개월 동안처럼 이렇게 빈번한 고위층의 내왕은 한 중 수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알려진 대로 금년 중에 강택민 주석의 북한 방문이 실현되게 되면 북 중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밀착될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북 중 관계는 정상회담 이전인 99년 9월 김영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의 대외적 국가 원수의 역할을 맡고 있는 그의 방중은 91년 김일성의 마지막 중국 방문 이후 단절되었던 북 중간의 정상 차원의 외교관계가 8년만에 회복되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의 방문기간 중에 중국 정부는 식량 15만 톤과 코크스 40만 톤을 북한에 무상 제공함으로써 정상관계 회복을 축하했고 북한도 다음 해 3월 6일 김정일이 외교적 관계를 깨고 직접 평양의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함으로써 이에 화답했다. 김정일의 중국 대사관 방문은 그해 5월말에 있었던 자신의 중국방문을 예고하는 선행 지표이기도 했다. 비공식 내부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대외적 노출이 최소한 생략된 채 진행된 김정일의 방중은 그 동안 중단되었던 양국 최고 지도자간의 내부 방문이라는 오랜 관행을 복원시켰다. 내부 방문은 복잡한 외교 절차를 생략한 채 필요하면 언제든지 최고 지도자가 수시로 서로 내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김일성 생전에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채 수시로 중국을 방문, 현안 문제들을 협의한 바 있다. 한국전쟁을 앞둔 김일성의 북경 방문이 그랬고 89년과 90년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 권 몰락을 앞둔 시점에서 두 차례나 김일성의 비밀 방문이 있었다. 따라서 양국간에 내부 방문의 관행이 다시 복원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비공개로 평양과 북경간에 서로 얼굴을 맞댄 최고위층 차원의 협의가 빈번해질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V. 북 중 관계의 결정 변수

향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 중 관계를 들 수 있다. 미 중 관계는 냉전시기 동안 미 소 관계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적 차원에서나 아시아의 지역적 차원에서나 모두 21세기 탈냉전 질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미 중 관계가 순조로우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 역시 순조로울 것이며 반대로 미 중 관계가 악화되면 그것이 한반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는 점에서는 공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과 평화의 현상유지라는 원론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대단한 격차를 보여준다.

중국이 현재 미국의 대중정책을 보는 시각은 우려와 경계 그 자체이다. 95년에 있었던 대만해협 위기와 미 일 안보협력 지침 개정을 전후하여 악화되었던 미 중 관계는 97년의 강택민 방미와 98년의 클린턴 방중을 계기로 다시 협력 단계에 돌입했으나 99년 6월 유고의 중국 대사관 오폭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재 중국의 대미 기본 시각은 미국이 동 서 양면에서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이중봉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대서양 동맹조약(NATO)이 동구 제국을 포섭하면서 중국을 유럽 쪽에서 압박해 오면서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 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통해 중국을 서쪽에서 포위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포위전략은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미 중간의 대결양상으로 가시화 할 수 있다고 중국은 보고 있는 것 같다. 미 일 안보지침의 개정도 따지고 보면 대만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 맞은 편에 있는 복건성과 절강성 남부에 중 단거리 미사일을 증강 배치하고 있으며 기습공격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한된 전략 핵 부대를

창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금년부터 중국 정부는 국방예산을 상당히 증액하기 시작한 바 있다. 금년 초 개최되었던 전국인민대표자 대회에서 주용기 총리는 국방예산의 두 자리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더라도 국방비 증액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4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공업, 농업, 과학기술 보다 항상 우선 순위가 뒤로 밀렸던 국방부분이 앞으로 예산배정의 최우선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만큼 중국의 대외 정책, 특히 대미정책이 강경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중국의 지도층 내에서 강경론자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서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는 정치국 내에 설치된 외사영도소조(外事領導小組)로 알려져 있다. 공식적으로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지만 실질적 대외정책결정 기구는 이 소조이다. 대외정책에 관한 모든 주요 결정이 먼저 이 조직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정치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토의 결정하지만 이 소조의 결정이 사실상 최종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소조는 현재 강택민 국가주석이 조장을, 주용기 총리와 전기침 외교 담당 부총리가 부 조장을 맡고 있으며 국무원의 외교부장(唐家璇), 국방부장(遲浩田), 국가안전부장(許永躍), 당의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劉華秋), 대외연락부장(戴秉國) 등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강택민과 주용기와 전기침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세 사람 이외에도 강택민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曾慶紅 당 조직부장이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도 강 주석에게 상당히 중요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네 사람이 모두 중국의 대외 정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 평가하는 이른바 미국 파로 분류된다. 강 주석의 경우 대만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협력을 중시 여기고 있으며 주 총리의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대미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전 부총리는 온건주의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97년 이전에는 외사영도소조의 조장은 이붕 총리였다. 이붕 총리는 대미관계에 있어 강경파로 분류된다. 95년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했던 것도 그가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미 강경책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97년 중국의 대미정책이 온건 쪽으로 돌아선 것도 이 조직의 책임자가 강 주석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법 설득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현재의 강택민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의 제 3세대 지도부가 내년 가을이 되면 보다 젊은 제 4세대 인물들로 교체된다는 점이다. 이들 제 4세대 지도자들은 胡錦濤 국가 부주석을 위시해서 溫家寶 당 중앙 서기처 서기, 吳邦國 부총리, 李長春 광둥성 서기, 黃菊 상해시 서기, 賈慶林 북경시 서기, 吳官正 산둥성 서기, 曾慶紅 당 조직부장 등이 주요 인물로 꼽힌다. 이들은 모두 예외 없이 40년 전후에 출생하여 49년 건국 이후 사회주의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6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문화혁명과 같은 毛澤東의 극단적 투쟁논리가 초래한 정치 사회적 혼란의 피해를 직접 체험한 세대이다. 또한 이들은 90년대 전 후반에 당 중앙위원회에 선출된 등소평의 실용주의 정책의 수혜자로서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실용주의자들이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이들은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띄우고 있다. 이들의 절대 다수가 중국 국내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졸업 후에도 해외 연수의 기회를 갖지 못한 순수한 국내 파들이다. 동시에 이들은 반제국주의적 사회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결과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 활발한 경제협력을 해야하며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체제에 적극 참여해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부국 강병이라는

민족주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들의 교육과 시각을 미루어 보면 이들이 최고 정책결정자의 위치에 오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중국의 현대화를 계속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주권이나 핵심적 국가이익과 관련된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배타적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띄우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대미관계에서 보면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만문제나 기타 안보 전략적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이들 4세대 지도층이 현재의 3세대에 비해 보다 더 집단 지도적 성격을 띄게 될 것이라는 점도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이 보수 강경화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더 짙게 해준다. 현재의 지도층에도 집단 지도체적 측면이 있긴 하지만 강택민이 국가 주석과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3대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4세대의 경우 호금도가 이들 3대 요직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특히 호금도의 경우 군 경력이 전무하며 군부 내에서의 지지기반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 1부주석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군부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그를 지지하고 그에게 충성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에 지도부가 교체되더라도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는 강택민이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 이런 추측이 나온다는 사실이 바로 4세대 지도자들의 군부에 대한 장악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다. 어찌 했던 4세대 지도층이 집권하게 되면 대외정책 분야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스스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들 차기 지도자들이 군부의 압력을 받게 되면 중국의 대외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VI. 중국의 한반도 정책 전망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유지를 일차적 목표로 한다.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현상의 타파가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여행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남북한의 균형이 북쪽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는 북한 주도의 통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통일이 아닌 다른 형태로라도 한반도에서 현 분단 상태가 깨어지는 것은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의미할 뿐이라는 게 중국의 냉철한 판단인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한반도를 결코 포기할 수도 없다. 이미 지적한대로 중국에게 한반도는 자신의 국가안보에 필요 불가결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이다. 49년 건국 이래 스스로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이 바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말해 주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직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에게 강택민이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행사해 왔으며 이는 대체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말(인민일보, 00.6.16)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대체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나라가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도록 하지도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그만큼 중국의 대외안보전략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 상황은 물론 한반도 전체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놓여지는 경우일 것이다. 반대로 중국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상황은 중국의 적대 국가가 한반도에서 배타적 영향력을 확립하는 경우이다.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전자의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오히려 후자

의 경우가 가장 실현 가능한 한반도의 전략 상황이라고 중국은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한반도가 적대국의 세력권으로 들어감으로서 자신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 된다. 다시 말해 21세기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기본 성격은 소극적 전략(denial strategy)이라 할 수 있다. 이 소극 전략의 핵심이 바로 북한의 몰락을 방지하고 나아가 북한이 정치 경제적 안정을 회복해서 남북간에 대체적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중국이 미 북 관계 개선과 미 일 관계 정상화를 지지하는 것도 그것이 북한의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 회생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변형된 형태의 연방제 방식을 통한 남북 통일 방안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그것이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 특히 미군의 위상이다. 주한 미군이 한반도의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의 즉각적 철수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군이 항구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도 반대한다. 한반도에서 출현할 통일국가가 중립적이기를 바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상회담 이후 북 중 관계는 적어도 당분간 밀착상태를 계속할 전망이 짙다. 미 중 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한반도에서 미 중간의 협력 공간은 좁아질 것이고 북 중 관계의 밀착 정도는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 중 관계가 경직되고 극단적 대립의 관계로 발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미 중 관계의 악화와 북 중 관계의 밀착이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갖는지는 이미 최근의 남북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에게 미국은 정치 경제 안보의 모든 면에서 사활적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다. 또한 중국은 우리의 제 3의 교역 대국이자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건설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 동반자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심각한 상황은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흑백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바라보던 과거의 편협한 동맹논리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이나 북한이 지향하도록 강조해야 할 21세기의 대외관은 상호의존적 국제질서이라 할 수 있다.

조중 주요 상호방문 일지

49.10.6 조중 수교

- 50.1 李周淵 북한 대사 북경 부임 50.1.28 신임장 제출 3.12 오후 5:30 주은래, 북한 대사 접견 (외교부) 3.28 밤 11:20 모택동, 북한 대사 접견. 같은 날 밤 11시에는 소련 대사 로신 접견
- 50.8 예지량(倪志亮) 중국대사 평양 부임. 50.8.13 신임장 제출 50.6.30 주은래, 시성문(柴成文) 무관에게 주북한 대사관 개설 지시. 예지량은 신병 치료차 무한 체류. 7.10 시성문, 평양 도착
- 50.5.13김일성 방중(비공식). 50.3.30-4.25 김일성, 박현영과 함께 모스크바 방문. 스탈린과 한국전 협의
- 50.10.19 지원군 파견 전쟁기간 중 중국이 제공한 물자 560여만 톤, 전비 60여조 엔, 사상자 36만 여명
- 64.11.16 김일성 방중(비공식) 16일 오후 5시 조어대 18호 각에서 주은래, 등소평, 팽진과 회담. 회담후 모택동 면담. 김일성은 월남 방문 후 귀국 길. 월남 방문길인 11.6일도 북경 귀착 모와 회담. 불화조짐의 시작. 소련의 신 지도부에 대한 평가와 월남전에 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대응을 둘러싸고 북중이견, 갈등 본격화? 북은 월남 지원에 적극적.

65.2 코시킨, 방북

65.4.16 주은래, 인니에서 김일성과 회담. 19일 2차 회담. 비동맹회의 10주년 기념식 참석 중

65.8 북한 해방 20주년 축하 사절단에 하위 급 파견 단장(중국 전인대 상무위원 武新宇)

65.11.10 이주연 부수상 방중. "김일성 수상의 위탁으로 북한 관심 국제문제에 관해 주은래 의견 청취". 11일 주은래와 2차 회담. 오후 3차 회담. 저녁 4차 회담. 12일 오전 귀국

67.10.24 주은래, 중국 방문 마치고 북한 방문하는 모리타니어 공화국 대통령 다다흐 공항 전송. 주은래, 다다흐에게 기내에서 대북 3개항 구두 메시지 전달. (1)북한 거주 화교들의 반복행위 유감 (2)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의 약간의 편향적 행위 유감 (3)북한의 반제 투쟁 지지) 10.22 다다흐 대통령, 귀국 길에 북경공항에서 북의 4개항 구두 메시지를 주은래에게 전달. (1)북의 대중 정책 불변 (2)공동투쟁 통해 쌓은 모택동, 주은래 동지와의 우의 존중 (3)쌍방 간의 이견은 토론 통해 해결 가능 (4)북한 피침시 중국의 지원 확신

69.9.10 최용건 방중(호지명 장례식 참석 후). 주은래와 회담. 김일성의 관계개선 희망 전달. 11일 주은래 주최 만찬. 동일 밤 11시 주은래와 2차 회담. 북한, 소련의 아시아집단안보 반대 의사 표명.

69.9.30. 최용건 방중. 중국 국경일 축하 당정 대표단 인솔. 밤 11시 30분 도착. 주은래 영접.

10.1 저녁 주은래 주최 환영 만찬. 10.2 오후 7시 주은래와 회담(京西賓館). 10.3 오전 귀국. 이 방문은 갑작기 이루어진 것으로 원래는 중국 정부가 외국 대표단을 초청하지 않을 계획이라 북한에도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으나 중국정부가 갑작기 태도를 바꿔 9.30 하오 3:20에 초청장을 발송. 북한이 3시간 뒤인 6:25분에 참석을 통보하여 이루어진 것임.

(최용건, 모택동 회견? "Do you still think we are the revisionists? No. 이채진, p. 102.)

70.4.5-7 주은래 방북(문학 기간 중 소원관계 해소) 4.5 오전 평양 도착. 김일성 공항 환영. 수 10만 군중. 오후 4시 김일성과 회담. 저녁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일성 주최 환영연회. 4.6 오전 9시 25분 홍부초대소에서 2차 회담. 오후 3시 55분과 8시 40분 같은 장소에서 3, 4차 회담. 김일성과 4차례 14시간 회담. (대사 재부임 합의? 이채진, p. 102.)

70.6.24-29 박성철 부수상 일행 방중 한국전 20주년 기념식 참가 차. 6.27 오후 7시 30분 모택동 접견.

70.7.26 북한 군사 대표단(단장 오진우) 방중. 29일 오후 5시 모택동(상해) 접견.

70.10.8-11 김일성 방중(비공식) 문학 후 처음. 모, 극좌파 비난. 8일 오후 3시 50분 도착(주은래 공항 영접).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모택동 주최 만찬. 9일 오전 10시 주은래와 회담(조어대 18호 각). 10일 오전 7시 4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차 회담. 저녁 7시부터 8시 40분까지 모택동과 재차 회담. 모와 회담 후 주은래 주최 만찬. 11일 오전 귀국.

70.10.17 정준택 부수상, 정부대표단 인솔 방중. "경제기술원조 협정" "장기무역 협정" 체결

71.6.3 밤 11시 20분 주은래, 현준국 대사 회견(인대 복건청). 키신저 방중관련?

71.7.15 주은래 평양 방문. 15일 새벽 북경 발 평양 도착. 9시 30분부터 12시 45분까지 모란봉 초대소에서 김일성 과 회담. 키신저 방중 결과 상세히 설명. 3시 30분부터 7시 15분까지 다시 회담. 저녁 비행장으로 가는 차 중에서 김일성에게 진백달(陳伯達) 사건에 관해 설명. 주은래는 7.13일 오전 하노이 도착. 오후 3.30-5.30, 6.30-7.30 두차례 회담. 14일 귀국했으며 평양 방문 후 귀국 다음 날인 16일에는 현준국 북한 대사 주최 조중 우호조약체결 10주년 연회 참석(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49-75.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외교사 연구실 편, 世界知識出版社, 1993, pp.595-7).

71.7.9-11 키신저 방중. 주은래와 6차례 회담(조어대 5호각)

- 71.7.30-31 김일 (제 1)부수상 방중, 대미 8개항 주장 전달. 김일은 주은래와 30일 오후 3시 30분, 그리고 저녁 9시 20분에 두 차례 회담. 주은래 주최 만찬. 31일 새벽 김일을 비행장까지 환송. (위 자료, p. 599). 이 주장은 71.10.20-26 키신저 2차 방중 시 전달. 2차 방중 때 주은래 키신저와 10차례 회담 (회담 시간 23시간 40분). 논의된 내용은 닉슨 방중 시기, 회담 방식, 통신문제 등 이외에도 대만, 인도차이나, 조선, 일본 등 포함.
- 대미 8개항: (1)미군 철수 (2)핵무기 미사일, 기타 각종 무기 제공의 즉각 중단 (3)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범 및 각종 정탐 정찰 행위 중단 (5)일본 군국주의 부활 방지 (미국 보증) 및 남한에서 미군 대신 일본군 불 대체 약속 (6)UNCURK해체 (7)남북간 직접 협상 불방해 (9)유엔 한국문제토의에 북한 참석 (초청 조건 철회)
- 71.9.6 무상군사원조협정 체결
- 71.11.1-3 김일성 방중 (비공식). 키신저 방중 직후. 주은래, 오후 4시 비행장에서 영접. 조어대 18호 각에서 6시부터 회담, 7시 30분 만찬, 8시 45분부터 회담 계속.
- 72.2.21-28 닉슨 방중.
- 72.3.7-9 주은래, 방북. 닉슨 방중 설명. 7일 오후 4시 40분 김일성과 1차 회담, 김일성 주최 만찬, 8일 오전과 오후 김일성과 2, 3차 회담, 9일 오전 김일성과 단독 회담. 김일성 주최 오찬 후 귀국. 주은래는 3.4일 오전 하노이 행. 닉슨 방중 결과 통보하고 당일 저녁 귀국.
- 72.8.22-25 김일성 방중 (비공식). 7.4공동성명 직후.
- 73.1.23 박정희, 대공산권 수교 의지 표명(New Foreign Policy for Peace and Unification)
- 73.6 경제기술협조협정 체결
- 89.11.5-7 김일성 방중 (비공식) 김영남, 허담 수행 등, 강, 이봉 등 북경 역에서 영접
- 90년대부터 중국, 북한에 무역 현금결제 요구 거래단위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바꿈
- 90.3.14-16 강택민, 방북 총서기 취임 후 첫 방문지
- 90 연형묵 방중, 경제협정 체결
- 90 전기침 구시(求是) 논문 한반도 안정, 총리회담 중요성 역설
- 90.9 가네마루 신, 다나베 마코도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일본 자민당, 사회당 대표단 방북, 김일성과 회담, 공동선언 채택.
- 90.9 김일성 심양 방문 (비공식) 세바드나제 방북 직후, 김일성, 세바드나제 면담 거부
- 90.9.30 한소수교, 90.10 한중 무역대표부설치 협의 (정홍엽, 이선기) 91.1 무역 대표부 설치 91.4 중국 대표부 서울 설치
- 91.5.4 이봉 방북
- 91.6 전기침 방북 김일성과 회담(6.19) 유엔가입 신청 지지 북한, 91.5 유엔 가입 신청 발표
- 5.29 중 외교부, 환영 입장 발표 9.27 북한, 유엔 가입
- 91.11 전기침 방한 노태우 대통령 접견
- 91.10.4 김일성 방중 (공식 강택민, 양상곤 국가주석 초청) 김일성의 39차 방중, 등소평과 2시간 회담 (등의 마지막 외빈 접견) 대북지원 확인, 경제지원 약속, 유엔가입 축하, 남북대화 촉구, 개혁개방 역설
- 91.10 소련방 해체 후 오진우 긴급 방중, 양상곤, 진기위 국방부장, 유화청(군위 부주석) 등과 회담
- 92.1 북중 무역협정 체결

- 92.1.9 미, 북한에 핵 협의 위한 고위 회담 제의. 1.9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환영 답화.
- 92.4.13-17 양상곤 방북 (공식) 김일성 생일 80회 기념. "양국관계와 한반도 정세 및 공동관심의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 평양선언 (4.22). 중국 불참
- 92.4 이상옥, 북경방문 전기침 면담(4.13). 전기침, 한중수교에 긍정적 입장 표명
- 92.5 정관건 방북
- 92.6 양백빙 방북
- 92.8 한중수교
- 92.11 북일수교 (8차). 00.4월에 9차회담 재개
- 93.7 호금도 방북 지호전 수행 김일성 회담 전승 40주년 기념
- 94년부터 중국, 대북 원조 재개
- 94.4 북한, 정전위 철수 발표. 94.8 소효경, 방중, 중의 정전위 철수 요구
- 93.12 북경 대사관 무관부 설치 중국은 94.3
- 94.9 이종옥 방중
- 95년부터 중국, 대북원조 재개. 구상무역, 우호가격 부활 (이종석, p.279)
- 95.10.6 강택민 주중북한대사 주최 북한정권 창립 50주년 기념연회 참석 "국제관계 불구 조중관계의 변함없는 발전 위해 전력..."
- 95.10 강주석 방한
- 96.4.16 한.미, 4자회담 제의
- 96.12 중국 국방부 외사국장 방한
- 96.5 홍성남 부총리, 정창열 인민무력부부장 등 방중 상품차관 협정과 경제군사원조 협정"경제기술합작협정"체결(5.21) (중국외교'97, p.907, 중국 개황, 외교부, 126)
- 96.7 라간 비서장 외 19명 방북 우호조약 체결 35주년 기념 이종옥 면담 식량 10만 톤 무상 지원 김정은 못 만남. 북한은 김윤혁 부총리가 방중 97년에는 식량 33만톤 (15, 18만톤씩 두 차례) 공개 언급. (중국외교'99, 32.)
- 97.3 4자회담 설명회 개최
- 97.4 이서환, 김일성 생일 (85회)기념연회 참석
- 97.4 한국 국방 차관보 방중
- 97.6.30 북한, 4자회담 참석 동의
- 97.6 인민군 대표단 방중
- 97.7.8 교석, 김일성 서거 3주년 기념식 참석
- 97.8 4자 회담 1차 예비회담 개최.
- 97.9 미일안보협력 지침 개정
- 97.10 강택민, 방미
- 97.11 진건 부장조리 방북 (외교부 차관보급 정례 교류) 4자회담 논의
- 97.12.7-10 4자회담 1차 본 회담 개최 (2차 98.3.16, 3차 98.10.21-24, 4차 99.1.18-22, 5차 99.4, 6차 99.8) 3차부터 분과위 설치 합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 98.2 이성인 대외연락부 부부장 방북 (당 간 정례교류)
- 98.3 천재홍 외교부 부부장 방중 연례 차관급 교류

- 98.6 Clinton, 방중 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
- 98.4 호금도 방한
- 98.8 용광개(熊光塔) 부총참모장 방북 (군당국자 정례 교류)
- 98.9 호금도, 북한정권 창설 50주년 기념연회 참석
- 98.8.31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 99.5.8 유고 대사관 폭격
- 99.6 김영남 방중 코크스 40만톤, 식량 15만톤 확보
- 99.8 조성태 국방장관 방중
- 99.10 당가선 방북 수교 50주년
- 00.1 지호전 국방부장 방한.
- 00.3.6 김정일, 북한주재 중국 대사관 방문 만상영 대사 이임 계기
- 00.3.21 백남순 외무상 방중
- 00.3 한국, 베를린 선언(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남북 화해, 협력 선언 - 북의 경제회복 지원, 냉전 종식, 평화공존, 이산가족문제 해결, 당국간 대화 추진)
- 00.4한국 해군 총장 방중
- 00.4.10 정상회담 합의 발표 중국 정부 환영 발표
- 00.4 증경홍 방한
- 00.5.29-31 김정일, 방중 (비공식) 5개항 합의(?) - 경제협력, 고위급 인사 교류, 사전통보 관행 유지, 지역안정 협력,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한국일보 00.6.5, 이종석,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응", p.13) 강택민, 김정일에게 남북관계개선과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언급. 중국은 또한 자신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행사해 왔으며 이는 대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 徐寶康, "和平和解新里程" 인민일보, 00.6.16.
- 00.6.15 중국정부 논평 - "중국은 이번 회담을 역사적 의미를 지닌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 귀중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이번 회담의 성공을 중심으로 기뻐하며 축하를 보낸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문제는 당사자 쌍방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쌍방은 계속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반도 자주 평화통일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를 희망한다." 인민일보, 00.6.16
- 00.6 황국 상해 당서기 방한
- 00.6 김일철 방중
- 00.7 푸틴 중국 및 북한 방문 "북경선언" 및 "ABM조약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북경)
- 00.8 엽선평 정협 부주석 방북 김영남 면담
- 00.8 합참의장 방중
- 00.9 대병국 부장 방북 김정일 면담
- 00.10 조명록 방미, 올브라이트 주최 만찬 10.10, 공동컴뮈니케, 10.12.
- 00.10.23-24 올브라이트, 방북, 김정일과 총 6시간 회담.
- 00.10 지호전 (군사 대표단), 방북 한국참전 50주년 행사 참석 김정일 면담 5.1경기장에서 18만 군중 환영 대회(10.26)
- 01.1.15-21 김정일 방중 (비공식) 1.21 강택민과 회담 북측 배석자 (김영춘 총참모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부장) 군사 외교 문제 논의 가능. 부시 취임일. 상해에서 3박 4일.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정 확했다" 인민일보 01.1.21

01.2 길형보 육군참모총장 방중

01.3 증경홍 조직부장 방북 대북지원 강택민 년내 방북 합의.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동안 다수의 고위 인사교류는 90년 이후 처음.

북한-중국 간 주요조약 체결 현황

49.12 통상우편협정

53.11 경제·문화협조 및 지원협정

57.12 과학기술협조협정

58.9.27 중요물자 공급에 관한 협정 및 차관제공 협정

59.12 항공운수협정 문화협조협정

60.10.13 차관협정(61-64년 간 장기차관 제공)

61.7.11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62.10 변경조약

62.11 통상 및 항해 조약

70.10 경제원조 및 71-76년 간 장기 통상 협정

71.9 무상 군사원조 협정

73.6 경제기술 협조 협정

77.3 장기무역 협정

78.6 압록강-두만강 수문사업 합작 협정

80.1 국경하천 운송 협력 협정

80.3 무역의정서

80.11 보건협정

80.12 과학협력 협정

82.10 장기무역 협정

82.11 무역수지, 비무역수지, 통화교환 협정

82.12 무역협정, 출판분야 협력 강화 협정

85.1. 무역협정

85.2 철도협정

85.3 85-86 문화교류협정

85.11 영사협정

86.3 보건 및 의약과학 협력 협정

86.8 87-91 장기무역협정

89.3 북한·소련·중국·몽골 철도수송의정서

89.4 경제·무역·과학 및 기술개발 증진을 위한 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

- 90.11 경제원조협정
- 91.12 북한·중국·소련·몽골 4개국 철도협정
- 92.1.26 무역협정 (경화결제 방식 적용 규정)
- 92.2.29 보건 및 의학과학 협정
- 93.11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 94.11 의학협조 협정
- 96.5 경제기술 협조 협정
- 00.9 체신·통신 및 정보기술협력 협정

한중무역 (단위 억불)

연도	'94	'95	'96	'97	'98	'99	'00
무역액	116.1	165.4	199	236.9	184.2	225.5	312.5
한국 수출	7.4	17.4	28.4	34.5	54.6	48.2	56.5

중국의 대북한 수출 (원조) 현황 (단위: 천불)

97년 534,680(34,414 - 6.43%) 98년 355,705(32,047 - 9%) 99년 328,702(48,364 - 14.7%)

주요 참고 자료

- 毛澤東外交文選(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4)
- 周恩來年譜 上, 中, 下(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97)
- 周恩來外交活動大事記, 1949-1975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3)
- 劉金質·楊淮生 主編, “中國對朝鮮和韓國政策文件彙編” 1-5(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 裴堅章 主編,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1949-56”(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4)
- 中國外交(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政策研究室)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중심, 2000)
- Chae-Jin Lee, China and Korea(Hoover Press, 1996)
- 중국 개황 (외교통상부, 2000)